

삼성디스플레이, AM-OLED 총공세

2013년 패널 누적 판매량 5억대 돌파 ... 2015-2016년 폴더블제품 출시

삼성디스플레이의 AM-OLED(Active Matrix-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패널 누적 판매량이 2013년 5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은 <제2회 삼성 애널리스트 데이>에서 “2013년 말까지 AM-OLED 패널 판매량이 5억대를 넘어설 것”이라고 밝혔다.

AM-OLED는 2007년부터 양산했으며 관련특허도 꾸준히 늘어 9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기남 사장은 “삼성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AM-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폰, 태블릿PC, TV 등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삼성디스플레이는 Wearable Device, 자동차, 교육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AM-OLED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.

그러나 두께 5mm 이하의 완전히 접을 수 있는(Foldable) 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이 더 필요해 2015-2016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1/07>